

금개구리



작가의 말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인천삼산초등학교 연못에는 금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그 개구리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금개구리인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작고, 활동성도 작은 금개구리는 그런 특성 때문에 서식지 파괴에 더 취약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구요. 인천의 깃대종 금개구리, 금줄이 빛나는 금개구리!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지켜봐요.

쪽쪽 꾸우욱
쪽, 꺾~~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안들리는데..
잘 들어봐.



쪽쪽 꾸우욱
쪽, 꺾~~

저기 개구리가 있어!
개구리 소리인가?
개굴 개굴 소리가 아닌데...

쪽쪽 꾸우욱
쪽, 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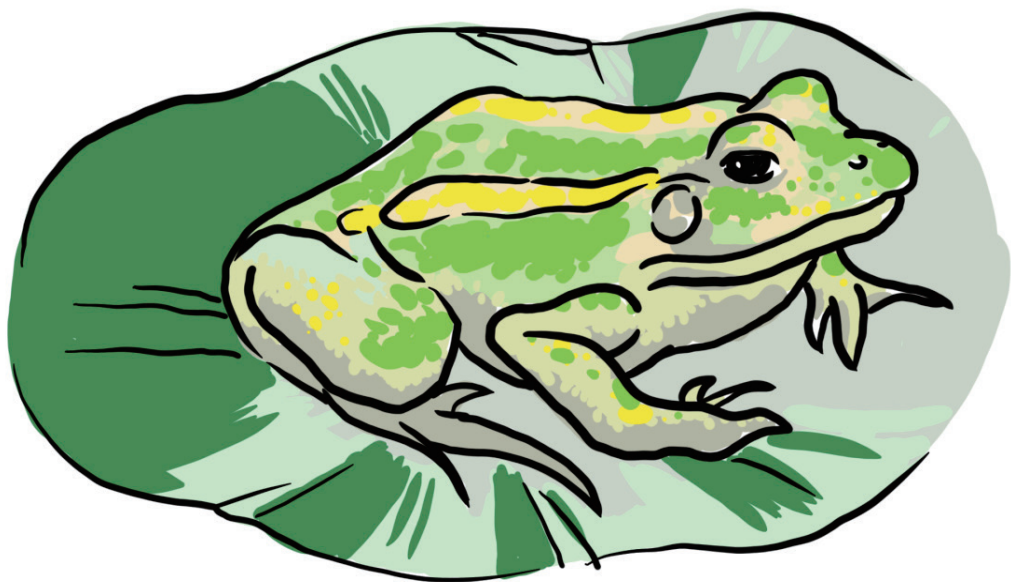
저 개구리가 내는 소리가 맞아.
정말?
개구리가 이런 소리도 내는구나
신기하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저게 뭐지?
놀라게 하지 말자.
개굴 개굴 안 우는데
개구리가 아닌가?

아니야, 맞아.



왜 자꾸 나를 쳐다보지?
설마 나를 모르나?
나는 금개구리인데..
인천에 살면서
인천을 대표하는 나를 모르다니
서운해!!!



5종

인천광역시 깃대종을 아시나요?



깃대종이란?

1993년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생물다양성 국가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생물종으로 생태적·지리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생물종”을 말합니다.

저어새,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대청부채와 함께
인천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생물이라구!
나는 그 친구들 중에서
너희들과 가장 가까이 살고 있잖아.



그런데 왜 혼자 있지?
친구들은 어디에 있을까?
외롭겠다.
심심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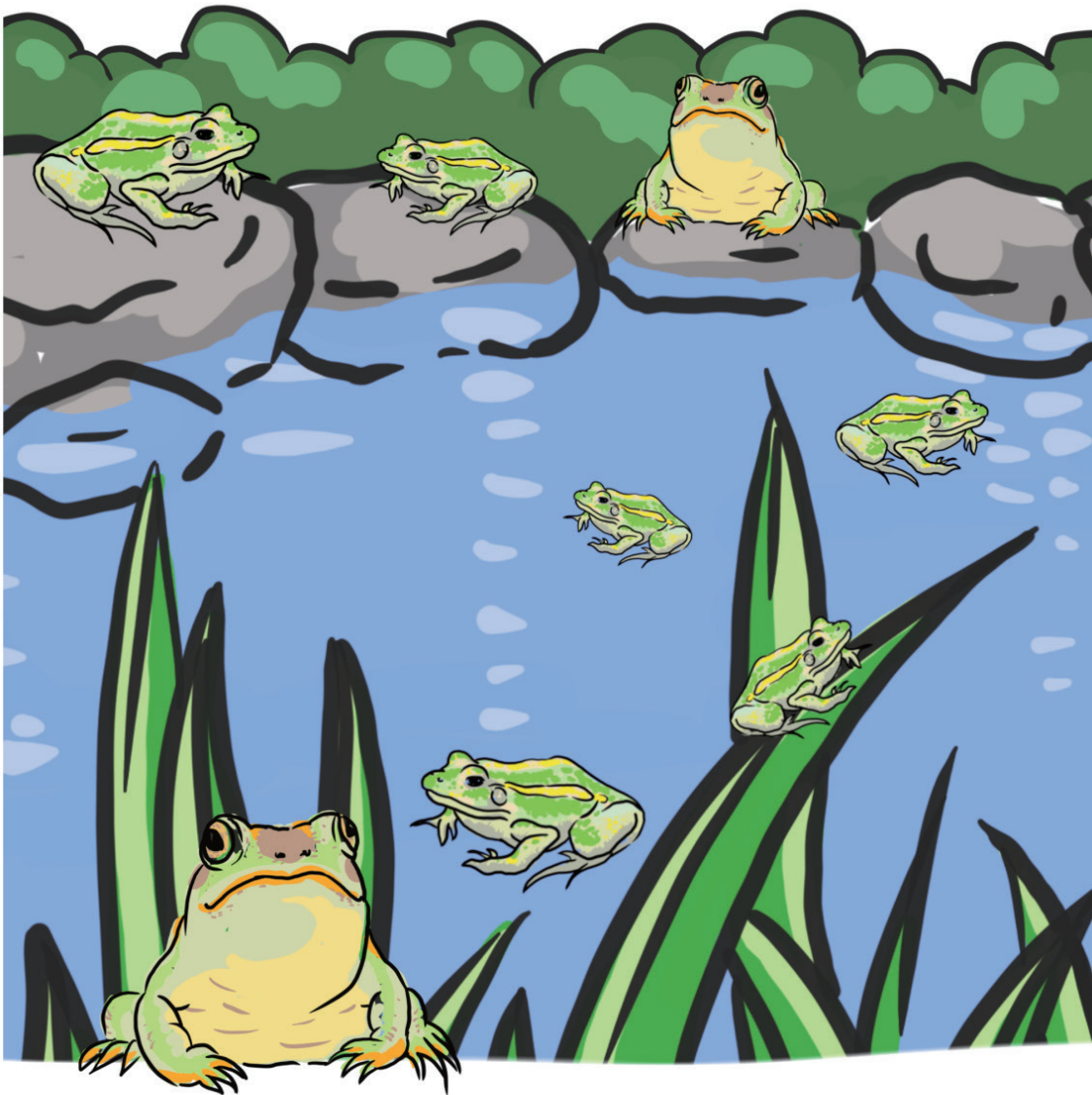


어느 날 친구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더니
이 연못에는 나만 남게 되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멸종위기라고 해.
나도 너희처럼 친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얘도 우리처럼 친구가 많아지게 도와주자.
깨끗한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관심을 갖고 지켜줘야 해.
자연을 보호해야 개구리가 살 수 있을거야.

개구리 등에 금줄이 있네.
눈 주변도 금색이네!
아! 금개구리인가봐.



금개구리가 많아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책을 만들어 주신 분들

지도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과장 변종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전문관 김태정

기획 및 총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장학사 김태선

글

권미경 인천부내초등학교
김경화 인천한길초등학교
김지은 인천삼산초등학교
이소희 인천삼산초등학교

그림

신호수 송도미미아트

발행일

2023.11.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조성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저작권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개구리

